

트럼프 '선거조작' 주장... 불복종 핑계 찾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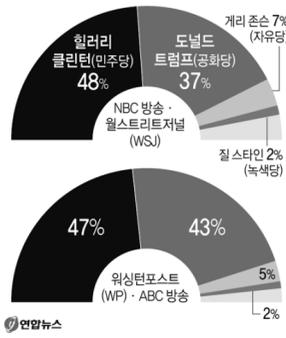
성추행 의혹 보도 언론 겨냥 지지층 "힐러리 감옥행" 동조 러닝메이트 "결과 수용" 입장차

미국 대선이 약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사진) 지지자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11년 전의 '음담패설 녹음파일'에 직격탄을 맞고 최대 위기에 처한 트럼프가 연일 '선거조작'을 주장하면서 이에 동조하는 지지자들도 막발을 쏟아내고 있다. 지지자들은 쿠데타에 심지어 민주당 대선후보 힐러리 클린턴을 감옥에 보내거나 총살해야 한다는 극단적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선거 패배 시 불복종 운동을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그동안 선거조작 가능성을 제기해 온 트럼프는 15일(현지시간)에도 트위터에서 "사기꾼 힐러리를 당선시키기 위해 거짓되고 근거도 없는 주장, 노골적인 거짓말

을 쏟아내는 미디어에 의해 선거가 조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과거 성추행 의혹을 알다시피 보도하는 언론에 불만을 터뜨린 것이다. 트럼프는 또 "힐러리는 (이메일 스캔들) 기소돼 감옥에 갇어야 한다"면서 "그런데도 기소는 커녕 현재 이 조작된 선거판에서 대선후보로 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16일에도 트위터에 "이번 선거는 사기꾼 힐러리를 미는 부정적이고 왜곡된 언론에 의해 완전히 조작됐다. 많은 투표소에서도 그렇다(조작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글을 올렸다. 트럼프의 측근인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 시장도 선거조작 주장에 동조했다. 줄리아니 전 시장은 CNN의 프로그램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에서 검찰로 일하던 시절 시카고 선거에서 720명의 '망자(亡者) 투표' 적발 사실을 거론하며 민주

힐러리 vs 트럼프 지지율

각 여론조사 일자: 10월10~13일(현지시간)



당이 도심 지역에서 망자 투표를 활용한 조작으로 승리를 훔쳐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가 필라델피아와 시카고에서 공정한 선거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하기를 기대하느냐"며 "그렇다고 말하면 나는 멍청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가 이처럼 끊임없이 선거조작 가능성을 제기

하면서 그의 성난 지지자들은 극단적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15일 미 일간 보스턴 글로브에 따르면 트럼프의 열성 지지자로 도급업자인 덴 보우맨(50)은 최근 오하이오 주(州) 신시내티 유세에서 "만약 클린턴이 대통령에 취임하면 우리가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길 희망한다"면서 "그녀는 감옥에 가거나 총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필요하다면 우리는 혁명을 일으켜 그들을 쫓아낼 것"이라며 "엄청난 유혈사태가 있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나는 이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어떤 일이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의 부통령 러닝메이트인 마이크 펜스는 이날 NBC 방송의 '미더 프레스' 인터뷰에서 "미국인들은 미디어의 명백한 편향 보도에 지칠 대로 지친 상태다. 사람들이 '조작된 선거'라고 느끼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며 트럼프와 자신은 "대선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미 언론은 트럼프와 펜스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고 전했다.



박종구의 중국 인물 이야기



〈초당대 총장〉

사마예의 참모 왕도

왕도(王導, 276~339)는 남야 왕씨 출신으로 자는 무흥이고 시호는 문헌이다. 8왕의 난 이후 남사왕 사마예를 보필해 강남에 동진 정권을 세우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는 사마예가 남사왕이 되자 안동 사마가 되어 그의 핵심 참모가 되었다. 성도왕 사마염이 8왕의 난에서 승리해 황태제가 되어 실권을 장악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사마예는 그의 충고를 받아들여 강남으로 근거지를 옮겼다. 동진 정권의 운명은 강남의 토착 호족들의 협조에 전적으로 달려있었다. 강남의 귀족들은 사마예를 무시했다. 사마씨 일족 가운데 황실과는 먼 친척에 불과했고 이렇다한 명성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강남 호족의 환심을 사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사마예가 화려한 의

상이나 무망 등 여타 지역은 수준이 많이 떨어졌다. 그는 두 세력을 차별적으로 대해 양자가 결합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히 다루었다. 소주와 회계의 호족은 우대한 반면 다른 후진호족에 대해서는 냉담히 대했다.

그는 성미가 괘괄한 왕돈과는 달리 현실적 정치인이었다. 사마씨의 권위를 인정해 주면서 강남 귀족과 통혼이나 관직 임용 등을 통해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다. 정권 초기에는 중외 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지만 점차로 강남 정권의 안정에 치중하였다.

왕씨의 세력이 커지자 원제 사마예는 측근인 유의와 조협 등을 중용해 그 힘을 꺾으려 하였다. 강주, 양주, 형주, 상주, 교주, 장주 등 6주의 군사대권을 장악한 왕돈이 조정에 반기를 들었다. 그는 매일 새벽마다 조정에 나가 왕돈의 역모를 사죄했다. 그는 머리를 조아리며 "해지려는 신하와 역

강남에 동진 정권 터 닦은 일등공신

장을 갖추고 행진케 하여 위세를 과시했다. 사마예로 하여금 고영과 하순 등 명문 인사를 직접 방문케 해 그들의 환심을 샀다. 하순을 오록내사로 삼고, 고영을 군사로 삼았다. 기침과 변근도 중용하였다. 그는 사마예에게 "선비를 대할 때 겸양하게 하라"고 당부했다. 강동의 민심이 서서히 동진 정부에 귀의했다. 중원에서 남은 중신들의 설득 작업도 그의 몫이었다. 주의가 도망쳐 오자 그를 군사제후로 삼았다. 환이 역시 난을 피해 양자강을 넘어왔는데 사마예가 아무 힘도 없고 무력한 것을 보고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했다. 그는 "나는 중원에 난리가 많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안전한 것을 찾았는데 이처럼 나약하니 장차 어찌 어려움을 구제할 수 있겠는가"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왕도와 만나 세 상일을 함께 논의한 후후에 "더 걱정할 것이 없다"고 했다.

왕도와 왕돈 등 남야 왕씨의 영향력이 커진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사마예는 그를 숙부라 부르며 모든 정사를 함께 논의했다. 백성들 사이에서 "왕씨와 사마씨가 천하를 함께 다스린다"는 말이 회자 되었다. 그는 강남 호족을 어떻게 다루는가 여부에 동진의 사직이 달렸음을 잘 인식했다. 소주나 회계와 같은 선진지역의 호족은 학문과 교육수준이 매우 높았다. 반면에

적어 어느 시대인들 없었겠습니까. 못하지 않게 지금 신의 일족에서 나왔습니다"고 말했다. 왕도 덕에 조정이 유지될 수 있었다. 325년 원제가 죽자 유조를 받들었다. 사도가 되었고 시흥군 공에 봉해졌다. 명제가 죽자 5세인 성제를 보좌했다. 녹생사서가 되어 유랑과 함께 주요 대사를 처리했다.

327년 소준이 반란을 일으켰다. 조정은 그에게 자문을 구했다. 그는 "소준은 시기를 잘하고 음침해서, 반드시 조서를 받들지 않을 것이다. 우선 너 그렇게 포용하는 것이 낫다"고 건의했다. 소준은 수도에 침입해 조정을 장악했다. 많은 중신을 처벌했지만 왕도는 덕망이 있다고 보여 원래의 관직을 유지토록 하였다. 반란이 진정되자 승상이 되었고 3대의 걸쳐 승상을 역임했다. 339년 세상을 떠났다. 그는 총직하게 일했고, 진심으로 본분을 지켰으며, 욕심이 없고 마음이 깨끗했다. 식견있는 자들이 모두 흥하느라 망하는 시기에 잘 대처했다고 칭송했다. 욕심이 적었으며 공을 잘 세웠다. 창고에 비축된 곡식이 없었고, 비단 옷을 즐겨 입지 않았다. 그의 인품과 역량 덕분에 동진 왕조의 강남 통치가 공고해질 수 있었다.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중국 '선저우 11호' 발사 성공

2022년 우주정거장 완성 성큼

중국이 17일 오전 7번째 유인 우주선 '선저우(神舟) 11호'를 발사에 성공하며 '우주 굴기'를 가속하고 있다.

중국은 이번 발사 성공으로 미국, 러시아와 더불어 우주 기술 분야 최강국임을 대내외에 과시했으며 오는 2022년 완성 예정인 중국 유인 우주정거장의 중요한 토대가 될 전망이다.

선저우 11호는 이날 오전 7시 30분(현지시간) 중국 간쑤(甘肅)성 주취안(酒泉) 위성발사센터에서 장정(長征) 2호 FY11 로켓에 탑재돼 우주 공간을 향해 발사됐다.

중국 CCTV 등 주요 매체와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된 가운데 선저우 11호가 발사 9분여 뒤에 로켓과 분리된 뒤 예정된 우주 궤도에 진입하자 중국 당국은 발사 성공을 선언했다. 선저우 11호는 앞으로 이틀간 독립적으로 우주에서 비행한 뒤 지난달 15일 발사된 실험용 우주정거장 텐궁(天宮) 2호와 도킹할 예정이며, 우주인 2명은 텐궁에서 30일간 체류하는 실험을 진행하게 된다.

현재 선저우 11호는 텐궁에서 393km 가량 떨어져 있으며 현재 텐궁으로 진입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 이 우주선에는 징하이펑(景海鵬·50)과 천둥(陳冬·38) 등 2명의 남자 우주인이 탑승했다. 이들은 실험용 우주정거장에

머물면서 우주인의 생활, 작업, 건강유지 등 체류를 위한 각종 실험과 함께 우주의학, 공간과학실험, 공간응용기술, 수리유지 기술 등의 실험을 하게 된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이날 축전을 보내 선저우 11호의 성공적인 발사를 격려하는 등 중국 전역이 환호하는 분위기에 휩싸였다.

선저우 시리즈는 1992년 시작된 중국의 유인 우주선 발사 계획이다. 1999년 선저우 1호 발사 이후 지금까지 10차례 발사가 이뤄졌으며 1~4호는 우주인 탑승 없이 발사됐다.

선저우 11호의 발사와 우주정거장 도킹 실험이 성공하면 중국의 '우주굴기'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중국은 오는 2018년 우주정거장 건설에 필요한 실험용 핵심 모듈을 발사한 뒤 2022년 20t 중량의 우주정거장을 완성해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15일 실험용 우주정거장 텐궁 2호 발사에 성공하며 독자적인 우주정거장 건설 능력을 과시한 바 있다.

국제우주정거장(ISS)이 2024년까지만 운용된다는 점에서 중국이 2022년 우주정거장을 완성한다면 2024년 이후에는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우주정거장을 보유한 국가가 된다.



중국이 17일 오전 7번째 유인 우주선 '선저우(神舟) 11호' 발사에 성공했다. 선저우 11호가 이날 오전 7시 30분(현지시간) 중국 간쑤(甘肅)성 주취안(酒泉) 위성발사센터에서 장정(長征) 2호 FY11 로켓에 탑재돼 우주 공간을 향해 날아 오르고 있다.

첨단 8층 상가빌딩 매매

북구 오룡동(첨단삼성전자 정문 앞) 메가박스, 정부합동청사 1분

토 500평, 건 904평
(연구실, 본사건물, 경영컨설팅 사무실 최적합)
최고급 시설 / 주차 완비(60대)
※ 분할 등기 가능 ※

- ▶ 감정가 55억
- ▶ 매 가 38억
- ▶ 대출 27억 가능
- ※ 보증금 6억 월수익 3,000만 ※
- ▶ 실투자 5억

1층(상가) 120평(식당 입점완료)
2층~7층(룸 56개) 오피스텔 및 사무실
8층(41평) 고급룸 2개 스카이라운지 전망최고

010-7384-7800

사무실 임대

첨단 소형 연구실(사무실) 임대

◆ 입주 예정일 11월 중순

- ① 보 1,000만 월 40만 (투룸형) (주차 1대가능)
(전세 7천, 월 5만원) (전용 12평, 분양평수 16평)
- ② 보 500만 월 35만 (투룸형) (주차 1대가능)
(전세 6천, 월 5만원) (전용 9평, 분양평수 13평)

010-6670-9800

평택 토지 전문

▶ 120만평 LG전자 ▶ 110만평 (평택 신도시 530만평) (현택지구70만평) (미군기지이전) (KTX 개통) (평택 항)

(미군기지 - 5만평) (평택항) (현택지구 70만평)
※ 대한민국 최고의 투자처 !!! 평택 투자 절대 후회 없습니다.

◆ 경기도 평택시 전원주택지 분양

송탄역, 진위역 5분
토지 - 1,611평
토목 공사완료 (허가완료)
최고의 입지조건

※ (총 7필지 분할가능)
1필지 200평 3억
- 1억 투자시 가능 (용 2억)

※ 개발시 순수익 10억
▶ 전체 매가 16억

※ 토지 2억 ~ 30억까지 다량 확보 ※

경기도 화성시 A.P.T 투자 가장저렴하게 드립니다
※ 실투자 1천만원
A.P.T 34평 ▶ 매가 2억 4천만원
(용 2억 보3천 월 70만)

062-511-7800 010-6832-9700